

#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소분과(바이오) 제2차 회의 결과보고

2026. 3. 12.(목), 농어업정책팀

## □ 회의 개요

- 일시/장소 : 2026. 3. 12.(목) 14:00 ~ 16:00 / 농특위 대회의실
- 목적 :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 의제 도출 및 성과물 도출 방향 논의
- 참석자 : 10명
  -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 소분과(바이오에너지) 위원 6명(붙임)
  -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, 사무국장, 사무국 2명(이은영팀장 김태완전문관)

## □ 주요 회의내용

- 법·제도 정비 및 패러다임 전환
  - 바이오가스법의 진흥 법령화(인센티브 중심), 농산어촌 바이오매스 이용촉진법 제정 검토
  - 바이오에너지를 규제가 아닌 '진흥'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함
  - 기존 환경부 체계에서는 부담금 중심의 법안만 나올 수 있었으나, 지금은 인센티브 중심의 촉진 법령으로 개정할 적기
  - 부처별로 규제가 별도로 운영되어 영농 법인이 발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임, 원스톱 인허가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
- 바이오가스 고도화 및 열에너지 이용
  - 발전 폐열 이용 의무화 및 인센티브 도입, 원료 다각화 및 안전 관리 강화
  - 전력 생산에만 치중된 현재의 지원 체계를 '열에너지' 중심으로 확장하는 전략 필요

- 바이오가스 발전 열의 70%가 대기로 버려지고 있는 데, 이 열을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
- 수익성 좋은 음식물로만 원료가 쏠리는 편중 현상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지역 자원 기반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

#### ○ 고체연료 경제성 확보 및 규제 완화

- REC 가중치 상향 등 손실 구간 보전, 폐기물 관리법 기반의 과도한 시설 검사 기준 완화
- 고체연료 원가 갭에 대해 '손실 보전'보다는 경영 개선을 통한 '경제성 확보'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
- R&D가 진행되는 5~10년 동안만이라도 단기적인 REC 가중치 향상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

#### ○ 수용성 향상 및 민간 투자 촉진

- 에너지 자립 마을 시범 사업 방안 도출, 우수 사례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
- 바이오에너지는 훌륭한 자원임에도 '폐기물'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님비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
- 바이오에너지가 태양광·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해 주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완재라는 역할론이 부각되어야 함

### □ 향후 추진계획

- 차후 제3차 분과회의는 '26년 5월 7일(목) 14시 개최 예정
- 외부전문가 초빙을 통한 열에너지 정책 심층 토론 실시 예정
- 국회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의 안을 대외적으로 이슈화, 정책 반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부처별 대응안을 포함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보고서 발간 예정

**붙임****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바이오에너지 분과 참석 명단**

순번	소 속	직위/직책	성 명	비고
1	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	상임운영위원장	한석우	재생에너지 특위 위원장
2	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	집행위원장	강정현	
3	한경국립대학교	교수	윤영만	분과장
4	한국농축산연합회	사무총장	이상철	
5	농림축산식품부	사무관	이승환	김재경 위원 대리 참석
6	칠성에너지영농법인	본부장	최동석	

※ 위원명단은 가나다 순